



광산구청 정진희 '금빛 발차기'

‘대관남자’ 정진희(광산구청)가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4일 오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페어홀3에서 열린 제25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관도 여자 페더급 경기에서 정진희(오른쪽)가 대만 선수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희는 지난 4일(이하 한국시간) 베오그라드 페어홀3에서 열린 여자페더급 결승에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라를 7-0으로 제압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

여자페더급 박희지(한국체대)도 결승에서 중국의 장치양을 2-1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페더급에선 천용(한국체대) 터키의 바스크부그다이어를 2-0으로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5일 경기에서는 플라이급에 출전한 문길상이 결승에서 세르비아의 니노슬라브 바비치를 두 점 차로 누르고 금메달의 감격을 누렸다. 남녀 웰터급의 백선홍(동아대)과 이선형(우석대)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펜싱경기에서는 손영기(상무)와 김혜림(안산시청)이 5일 페어홀2에서 계속된 플뢰레와 사브르 남녀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영기는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토비아 비온도를 맞아 경기 초반 1-3까지 끌려갔지만 3-3 동점을 만든 이후 경기 주도권을 빼앗으면서 15-9로 낙승했다.

유니버시아드 남자 펜싱 개인전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손영기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은메달이 최고였다.

역시 유럽 선수들을 꺾고 여자부 사브르 결승에 오른 김혜림도 중국의 바오 잉잉을 맞아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15-11로 승리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하계 U대회 태권도 페더급 결승서 러 선수 꺾고 금 펜싱 손영기·김혜림도 유럽 넘어 남녀 개인전 우승

김혜림은 2년 전 방콕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사브르 단체전 우승에 이어 두 대 대회 연속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체조 남자개인 종합에 출전한 김수면(포스코)은 일본과 중국 선수에 이어 3위에 오르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축구는 C조 예선 3차전에서 후반 19분 터진 이재민(고려대)의 결승골에 힘입어 아일랜드를 1-0으로 꺾고 2승1무로 8강전에 진출했다. 여자 축구는 브라질과 경기에서 0-1로 졌지만 예선전적 2승1패로 역시 8강에 안착했다. 한편 남자 농구팀은 미국에 76-113으로 져 2패가 됐고, 남자 배구는 홈팀 세르비아에 세트스코어 1-3(14-25 20-25 25-22 15-25)으로 져 1승2패를 기록했다. 이날까지 한국은 금메달 7개를 따낸 태권도의 강세에 힘입어 금메달 9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2위 중국(금5,은7,동5) 3위 일본(금2,동2)을 제치고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연합뉴스

목포시청, 내셔널리그 15번째 구단으로

〈실업축구〉

10월 팀 창단...2014년 프로축구 K-리그 합류 목표

목포시청 축구팀이 오는 10월 창단식을 갖고 내년 시즌부터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제15번째 구단으로 참가한다.

5일 목포시와 한국실업축구연맹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을 세우고 선수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초대 감독에는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코치를 역임했던 김정혁(41)씨를 선임했다.

목포시청은 오는 12월 실업축구연맹 가입 절차를 거쳐 2010년 시즌부터 내셔널리그에

출전한다. 내셔널리그에서 실력과 기량을 쌓은 뒤 오는 2014년 프로축구 K-리그에 참가한다는 목표다.

이달 말 개장 예정인 목포국제체육센터 내 경기장을 홈그라운드로 사용하며 선수 30명과 코치진을 포함해 34명으로 선수단을 꾸릴 예정이다.

명지대 출신으로 1994년 미국 월드컵 패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신임 김정혁 감독은 대학선수권대회와 프로축구 2군 경기, 내셔

널리그 경기 등을 보고 15명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어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11월 프로축구 정규리그가 끝나면 구단별 방출 선수와 신인 드래프트 제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개 테스트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보강할 계획이다.

김정혁 감독은 “축구를 통해 목포 시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강하고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겠다”면서 “3년 안에 내셔널리그에서 우승하고 5년 안에 프로-아미추어가 모두 출전하는 FA컵에서 우승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5일 캐나다 캘러리 스탬피드에서 열린 황소 타기 이벤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타이 엘리엇이 8초를 버틴 뒤 황소에서 떨어지고 있다.

광주공고 박동환 학산배 씨름 ‘金’

박동환(광주공고)이 고교 모래관을 평정했다.

박동환은 지난 4일 경남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학산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남고부 용장급(85kg이하) 결승에서 안다리 걸기로 유상(광주 자연과학고)을 제압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박동환은 이날 열린 준결승에서 이광석(대구 능인고)을 상대로 잡채기 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서승원기자 swseo@

서리나, 윌블던 세번째 우승

‘흑진주’ 서리나 윌리엄스(2위·미국)가 윌블던 테니스대회 정상에 올랐다.

서리나는 4일(한국시간) 영국 윌블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를 2-0(7-6(3) 6-2)으로 꺾고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세 번째 윌블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윌블던 결승에서 펼쳐진 네 번째 자매 대결에서 지난해 결승 패배를 설욕한 서리나는 이 대회 세 차례 우승을 모두 비너스와 결승전을 통해 일궈내게 됐다.

또 10승10패로 팽팽하던 언니와 상대전적에서도 앞서나갔고 메이저대회 상대 전적 역시 7승5패로 격차를 벌렸다. /연합뉴스

男 배구 강호 아르헨헨 격파

월드리그 B조 예선 7차전

한국 남자배구가 폴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강호 아르헨티나를 꺾었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남자배구대표팀은 5일(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투나파크에서 열린 월드리그 B조 예선 7차전에서 박철우와 문성민 좌우 샐포의 활약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를 3-2(32-30 25-

20 21-25 22-25 15-10)로 눌렀다.

예선 전적 3승4패로 승점 2점을 추가해 9점을 확보한 한국은 B조 3위로 뛰어오르며 결승라운드로 진출 가능성에 불씨를 지웠다.

B조에서는 세르비아가 승점 13점(4승3패), 프랑스가 승점 11점(4승3패)으로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도 이날 승점 1점을 추가해 승점 9점을 얻었으나 점수 득실률에서 한국에 뒤져 최하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6일(월) ▲대동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원주·고) : 화순고(12 : 50·Xports) ▲화장기 전국 대학야구 준결승 (13 : 50·SBS스포츠)

한국선수단 숙소 화재 한밤 대피 소동

배전반 합선 추정...30분만에 진화, 피해 없어

제25회 베오그라드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선수단의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 선수단이 한밤 중에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한국시간) 오전 7시께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한국 선수단이 묵는 선플라워동 6층 배전반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나 연기가 7,8,9층으로 퍼졌

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숙소동 9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200여명의 선수단은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선수촌 내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나서 약 30여분만에 상황을 모두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불꽃은 일지 않았으며 한국 선수 중 다치거나 연기에 질식해 피해를 입은 이는 없다고 선수단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대회조직위원회측은 남자 선수단에는 선수촌에서 약 2~3km 떨어진 인근 대학 기숙사에, 여자 선수단에는 선수촌 내 빈방에 각각 임시 숙소를 마련해주고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다.

조직위는 이날 중으로 안전 검사를 완료, 한국 선수단의 재투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수단 관계자는 “선수단 중 피해를 입은 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며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걱정돼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법률경매(주) 0621-225-1688 H.010-3565-2888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Table with 5 columns: 지역, 소재지, 면적, 총/상수, 감정가, 최저가.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Table with 5 columns: 지역, 소재지, 면적, 총/상수, 감정가, 최저가.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 Gyeonggi, Chungcheong, and Jeollabuk.

Table with 5 columns: 지역, 소재지, 면적, 총/상수, 감정가, 최저가.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 Jeollabuk, Jeollanam, and Gyeonggi.

뜨거워지는夫婦(센놈) advertisement. Includes a photo of a couple, text about marriage counseling, and contact information: 상담 070-7786-8710/070-7786-9710, 전화 010-5296-4114.